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비트컴퓨터 (032850)

2차 병원급 시장점유율 1위의 EMR 기업

체크포인트

- 비트컴퓨터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기업. 동사의 사업 부문은 1) 의료정보시스템 (78.7%,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비중), 디지털헬스케어(1.9%), IT교육사업(12.5%)과 기타(6.9%)로 구성
- 투자포인트는 1) 클라우드 패키지 EMR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와 2) 점진적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 비트컴퓨터의 2023년 매출액 327억원(-7.0%YoY), 영업이익 62억원(+1.0%YoY) 예상. 2024년 매출액 345억원(+5.5%YoY), 영업이익 68억원(+9.4%YoY)으로 추정. 2024년 예상 PER은 17.1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Re-rating가능할 전망
- 리스크 요인은 매출 성장 둔화 및 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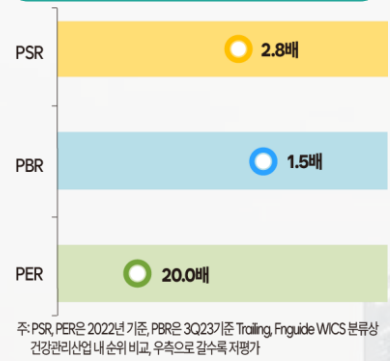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비트컴퓨터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기업

비트컴퓨터는 국내 2차 병원급 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 의원급에서 시장점유율 2위의 기업. 동사의 사업부문은 1) 의료정보시스템 (78.7%,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비중), 디지털헬스케어(1.9%), IT교육사업(12.5%)과 기타(6.9%)로 구성

투자포인트1. 클라우드 패키지 EMR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비트컴퓨터는 안정적 매출 창출과 수익성 개선 위해 구축형보다는 클라우드 패키지 EMR 비중 확대 중. 클라우드 패키지형 EMR의 매출 총이익율은 현재 30~40% 수준(구축형은 10% 미만)이며,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매출 증대 시 수익성 가파르게 개선 가능. 클라우드 EMR은 장기적으로 표준화를 통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전망

투자포인트2. 점진적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코로나 시기(2020.12~2023.5)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작년 9월부터 비대면 시범사업 진행 중. 비대면 진료 허용 속도는 더디지만 방향은 완화 추세.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 확대는 비트컴퓨터에 긍정적인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억원)	380	364	351	327	345
YoY(%)	1.7	-4.1	-3.6	-7.0	5.5
영업이익(억원)	56	64	61	62	68
OP 마진(%)	14.8	17.6	17.5	19.0	19.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5	48	49	53	58
EPS(원)	392	291	293	318	349
YoY(%)	-8.2	-25.6	0.5	8.4	9.8
PER(배)	28.3	32.9	21.0	18.5	17.1
PSR(배)	4.9	4.4	2.9	3.0	2.9
EV/EBIDA(배)	24.0	17.1	10.3	9.4	8.5
PBR(배)	3.4	2.7	1.6	1.5	1.4
ROE(%)	12.5	8.5	8.0	8.1	8.3
배당수익률(%)	0.5	0.6	1.0	1.0	1.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	5,960원
52주 최고가	7,830원
52주 최저가	4,860원
KOSDAQ (12/28)	878.93p
자본금	83억원
시가총액	991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7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9억원
외국인지분율	1.19%
주요주주	조현정 외 3인
	한국증권금융
	25.45%
	5.7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7	-11.0	0.7
상대주가	-6.5	-12.1	-23.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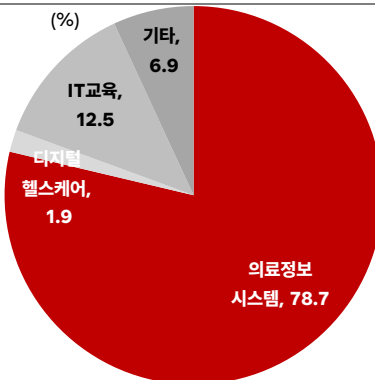
🏢 기업 개요

1 연혁

**비트컴퓨터는 2차 병원급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EMR기업**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이다. 당사는 병원, 의원, 약국과 보건소 등에 의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2차 병원급(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4개 이상인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 병원급(병상이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내에서는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사는 이 외에 디지털헬스케어사업, IT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은 주로 비대면 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이다.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IT교육사업과 기타(임대사업 등) 비중은 각각 78.7%, 1.9%, 12.5%, 6.9%이다.

비트컴퓨터의 매출 구성



주: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1983년 설립,
1997년 코스닥 시장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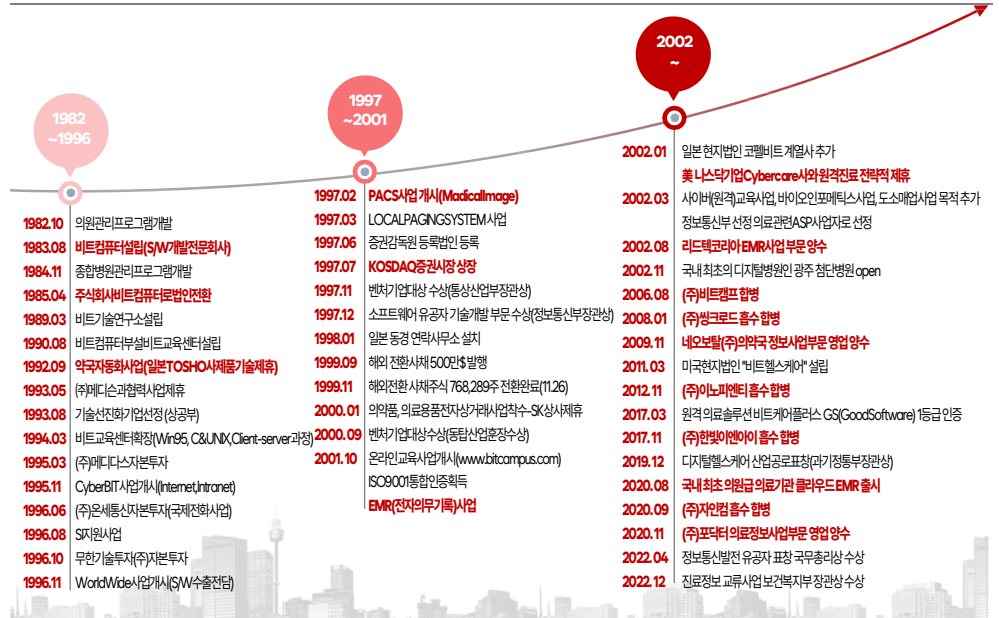
비트컴퓨터는 1983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비트컴퓨터는 1982년에 의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983년 소프트웨어개발전문회사로 설립되었다. 1984년 종합병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사는 1985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1990년 비트컴퓨터부설비트교육센터를 설립한 당사는 1992년에 일본 TOSHO사와 제품기술제휴를 맺고 약국자동화사업을 시작했다. 당사는 1997년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사업을 개시했고, 2001년에는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에는 미국 나스닥 기업 Cybercare사와 원격진료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2011년에는 미국현지법인 '비트헬스케어'를 설립했다.

당사는 2000년 초반부터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매출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2년 리드텍코리아의 EMR사업부문을 양수한 당사는 2006년에는 초/중급 컴퓨터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주)비트캠프를 합병하였다. 이어서 2008년에는 의료보험 심사청구 누락기재 및 적정청구유도사업을 영위하는 (주)싱크로드를 흡수 합병하고, 2009년에는 네오보탈(주)의 의약국정보사업부문을 영업 양수했다. 2012년에는 모바일 진료 솔루션과 대형병원 EMR인터페이스 사업을 영위한 (주)이노피엔티를, 2017년에는 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주)한빛에앤이를 흡수 합병하였

다. 2020년에는 EMR기업인 (주)자인컴을 흡수합병하고, 의원급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포닥터의 매직차트사업부문을 양수했다.

비트컴퓨터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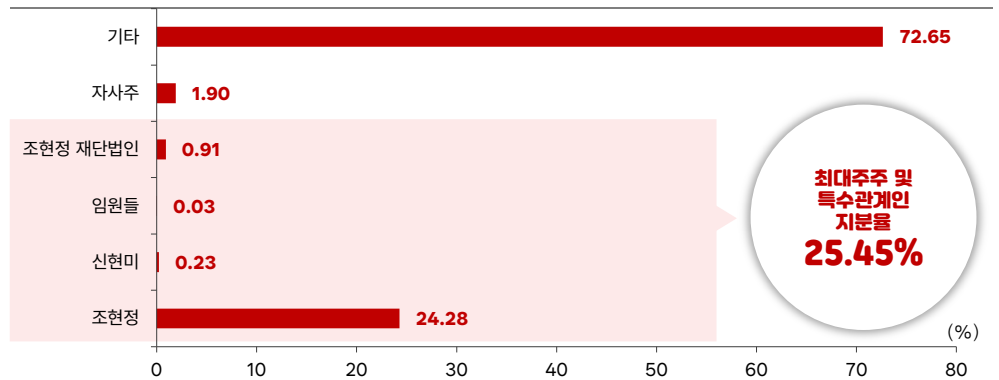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구성과 종속회사

비트컴퓨터의 최대주주는
조현정 대표이사로
24.28% 지분 보유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비트컴퓨터의 최대주주는 조현정 대표이사로 지분율 24.28%를 보유 중이다. 이와 배우자인 신현미(0.23%)와 임원들의 지분율이 0.03%이며, 재단법인조현정재단이 지분율 0.91%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합하여 25.45%이다. 동사의 자기주식수는 322,331주로 발행주식 수 대비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트컴퓨터의 주주 구성



주: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종속회사:

비트컴퓨터의 종속회사로는 (주)비트인테크(지분율 100%), (주)비타임(지분율 100%)과 비트닉스(지분율 26.7%)가 있다.

1) (주)비트인테크

2) (주)비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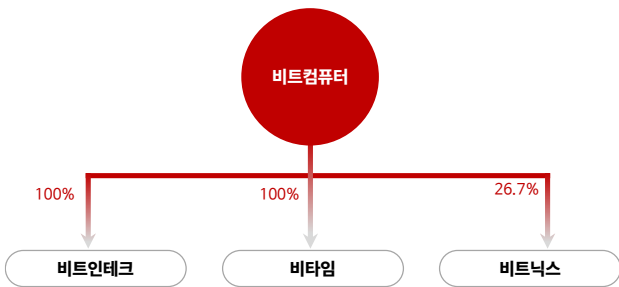
3) 비트닉스

비트인테크는 1999년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자산은 3억원으로 미미하며 2022년 매출액은 22억원,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0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미미하다.

비타임은 2016년에 설립된 컨설팅업체로 2023년 9월말 자산 규모가 32억원 수준이다.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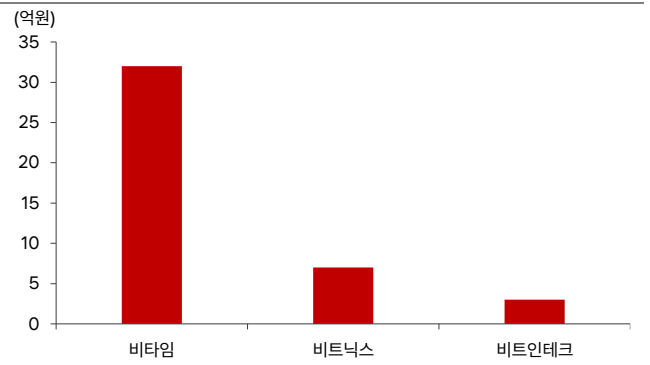
비트닉스는 2004년 태국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로, 비트컴퓨터의 동사에 대한 지분율은 26.7%에 불과하나,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여 종속회사에 포함되어 있다. 2023년 9월말 자산 규모가 7억원 수준이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억원이다.

비트컴퓨터의 종속회사



주: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트컴퓨터 종속회사들의 자산 규모



주: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디지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는 광의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속함.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9% 성장 전망**

비트컴퓨터는 광의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속한다. 세부적으로는 1) 의료정보시스템과 2)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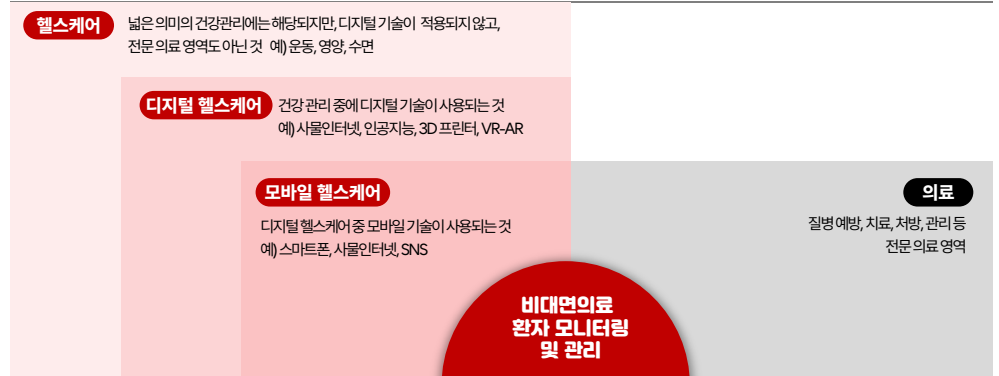
디지털헬스케어는 질병의 진단, 치료와 함께 건강의 유지 및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비의료서비스를 포괄한다. 기존 의료시스템이 환자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춘 사후적 대응 및 관리였다면, 디지털헬스케어는 치료 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을 통한 질병 예방까지,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8월~2022년 1월까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363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파악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2020년 시장규모(매출액 합계)는 1.35조원으로, 2019년 국내의료기기 시장(7.8조원)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GIA(2020)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0년 1,525억 달러로 추정된다. 분야별로는 모바일 헬스와 디지털 헬스시스템이 각각 57%,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 요소별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각각 30%, 20%,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이 전체의 68%를 차지, 점유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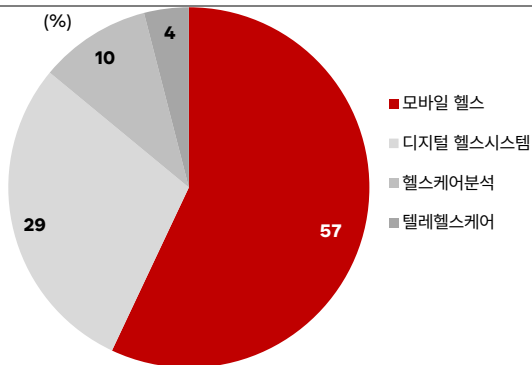
Global Industry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하여 2027년 5,08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견인하는 배경에는 1)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2) 5G 상용화와 3) Covid-19 팬데믹 등이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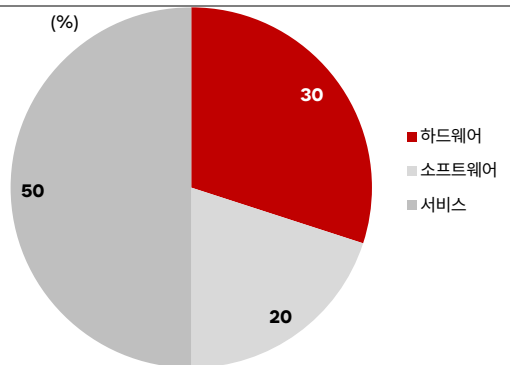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디지털 헬스산업 내 분야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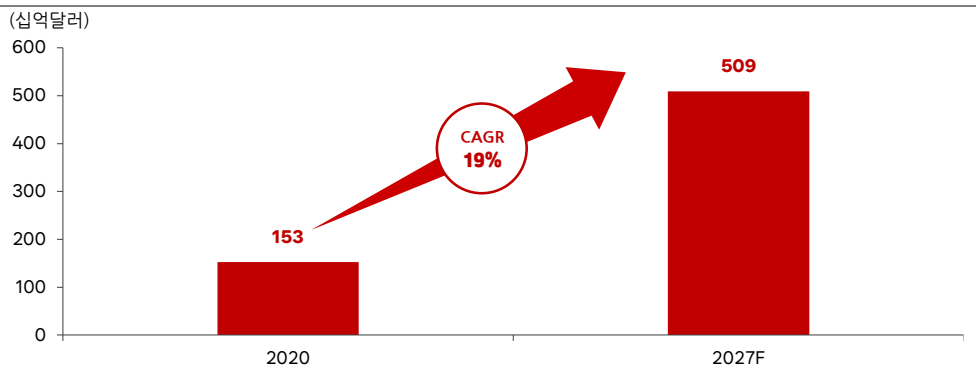
주: 2020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디지털 헬스산업 내 구성요소별 비중



주: 2020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성장 전망



자료: Global Industry,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

의료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은 병원 내 의료 및 행정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되었다. 병원 내 진료 현황부터 의약품 관리 및 재무 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주요 기능은 병원관리와 경영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관리 기능은 환자, 영상, 병동관리 등 병원 고유의 업무 시스템이며, 경영관리 기능은 원무, 수납, 인사 및 회계 기능으로 지원 시스템이다.

1990년대 기초적인 진료기록을 수집하는 역할에 그쳤던 의료정보시스템은 2000년 초반에는 병원 전반 업무의 전자 문서화 및 디지털화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핵심적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련 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 의료서비스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정보 시스템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이다. IT분야의 전문 리서치 기업인 Gartner는 의료정보시스템이 환자, 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관들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현재는 기능, 고객규모, 지리적 시장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있는 대형 벤더(Vender)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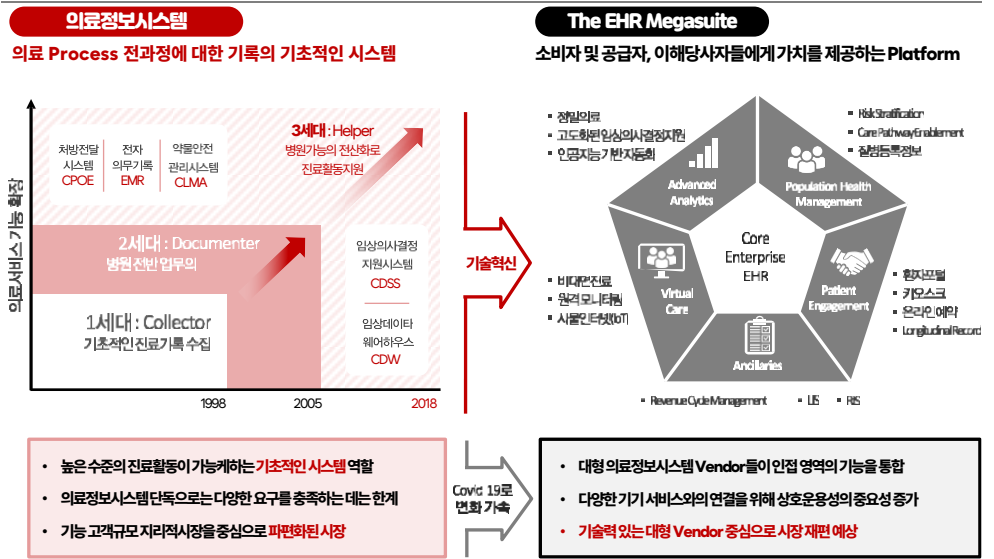
의료정보시스템(HIS)의 핵심적 기능은 전자의학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국내에서는 HIS와 EMR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EMR은 5단계의 발전단계로 거치는데, 한국은 현재 3단계(EMR, 병원내 의무기록의 공동활용을 위해 전자의무 기록단계)에서 4단계(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의료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 전자의무기록 체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3단계에 가깝다.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성

기능	상세
의료정보 시스템 (HIS)	EMR 전자 의학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 과거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진료사항을 전산화한 것
	PACS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 의료영상을 디지털로 변환 → 저장관리 → 전송
	OCS 처방 전달시스템 (Order Communicating System) - 의사의 처방을 지원부서에 전달
	RIS 방사선정보 시스템 (Radiology Information System)
	LIS 임상정보 시스템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경영 관리	MIS 경영정보 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DI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전자 문서화하여 데이터 전송 처리
	PM/PA 원무 관리 시스템 (Patient Management-Patient Account) - 환자의 입 퇴원수속과 병상관리, 진료비 심사청구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wC,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의료정보시스템의 진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



자료: Gartner, 이지케어텍,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MR 발전 5단계: 한국은 3단계에 머물러 있음

01	AMR	Automated Medical Record	환자등록, 보험청구 등 사무 자동화
02	CMR	Computerized Medical Record	의무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병원 내 전자보관
03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병원 내 의무기록의 공동활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04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동활용 전자의무기록 체계 모든 병원의 EMR 통합한 데이터
05	PHR	Personal Health Record	모든 건강정보가 포함된 전자건강기록 EHR에 개인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건강기록까지 통합

자료: 심평원, PwC,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 규모는
1.1조원으로 추정

한국은 1990년대 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2020년 전자의학기록 도입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00%이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96%, 90.5%가 도입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추산한 2020년 기준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 규모는 1.1조원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지케어텍이, 서울아산병원은 현대오트메버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삼성병원은 삼성 SDS가,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평화이즈가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중소형 병원과 소형병원을 대상으로는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등이 관련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3 플랫폼

**비트컴퓨터는
'바로닥터 플랫폼'으로
비대면 의료 시장 개화 준비 중**

비트컴퓨터는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부문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격의료, 즉 비대면 의료 시장 개화를 위한 준비로 동사는 '바로닥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원거리에서 ICT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적절한 진료, 처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는 1) 서비스의 제공대상에 따라 '의사-의사간'과 '의사-환자 간', 2) 종류에 따라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 의료법 제 34조의 ①)으로 규정하여 '의사-의사간'의 의료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Covid-19 방역대책 일부로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원격의료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1990년부터 원격진료를 합법화하고, 1993년부터 원격의료 시행되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원격의료에 보험급여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민영의료화에 대한 우려, 당연지정제 시행 하에서 중소 의료기관과 의원의 생존권의 이슈로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가 컸다. 2002년 의료법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과 대상을 한정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또는 모니터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2010,2014,2016)했으나 전부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중 일부를 허용했으나, 2023년 5월 종료되고 시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이다.

원격 의료의 유형

구분	내용	
원격 의료	원격응급의료	의사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현지 의사에게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원격으로 지원
	원격모니터링	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원격진료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송된 환자의 생체신호(음성, 혈당, 혈압, 맥박 등)의 측정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의 환자를 상담하거나 진단 및 처방하는 의료행위
	원격방문간호	노인 및 거동불편자의 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문적 의료서비스 지원
원격건강관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원격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측정정보(맥박, 혈압, 혈당 등)를 전송받고 건강관리서비스(상담, 교육 및 운동지도 등)를 제공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궤협의회 리서치센터

한국의 원격의료 추진 과정

연도	내용
1988	서울대병원-연천보건소 간 원격영상진단 시범 시행, 원격의료 최초 도입
2002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의료법 개정)
2006	정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 사업 추진 발표
2007~2009	격오지 부대, 독도경비대, 산간 및 도서지역 원격의료 시범 사업
2010	18대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제출했으나 폐기
2014	19대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2015	특수지 군장병, 원양선박, 제조사 등 148개 기관 대상 원격의료 시범 사업 시행
2016	20대 국회,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2019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강원도) 지정 및 원격의료 허용 특혜 적용
2020	정부, COVID-19의 2차 유행 대비해 일부 비대면 의료체계 구축 시행
2023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으로 전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R협의회 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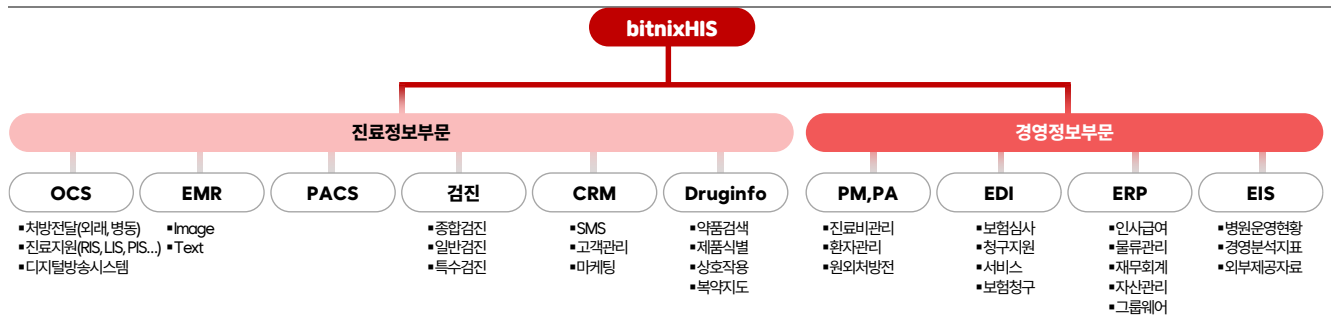
1 클라우드 패키지 EMR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투자포인트1. 클라우드 패키지 EMR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기대

비트컴퓨터의 첫번째 투자포인트는 클라우드 패키지 EMR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이다.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EMR은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의 토대 마련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동사의 EMR 제품으로는 1)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으로 bitnixHIS(SI: 구축형), 2) 병원 대상으로 bitnixHIB(SI), 3) 요양병원 대상으로 bitnixSilver(SI), 4) 의원 대상으로 BIT U Chart(Package)와 5) 약국 대상으로 Bizpharm (Package)이 있다. 비트컴퓨터는 2016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담은 EMR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병원 외부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후, EMR 업체 중 빠르게 2017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EMR 제품을 출시했다. 현재 동사의 클라우드 패키지 제품으로는 1) 종합병원 및 병원용으로 CLEMR, 2) 요양병원 용으로 bitnix Cloud, 3) 의원 용으로 BIT PLUS, BIT A Chart와 4) 약국 용으로 Bizpharm이 있다.

비트컴퓨터의 EMR제품: bitnix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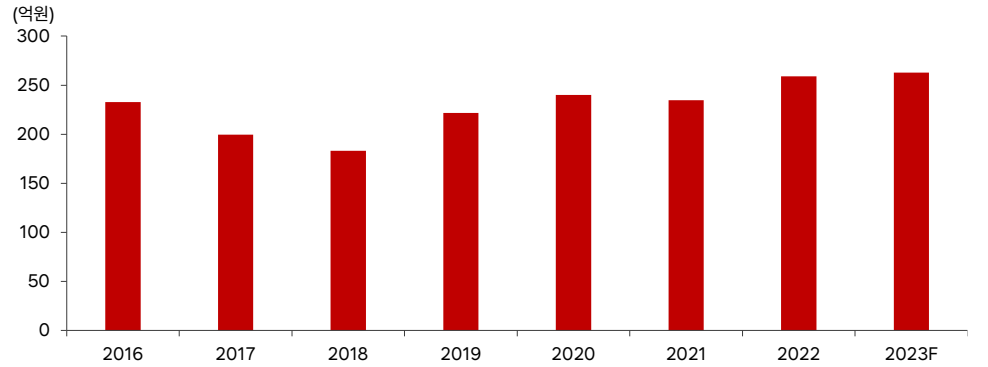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트컴퓨터의 의료정보시스템 매출액 성장률은 2016~2022년 연평균 1.8% 수준

국내 EMR 시장 전체 규모는 1.1조원(2020년 기준) 수준으로 대부분 병원이 도입해 성숙단계에 접어든 시장이다. 비트컴퓨터 전체 매출액의 73.7%(2022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EMR (의료정보시스템) 매출액도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8%증가하며 더딘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며, 동사의 EMR 매출액은 동기간 동안 200억원~250억원 사이에 머물러 있다. 2023년 동사의 EMR 매출액도 전년대비 1.5% 증가한 263억원으로 예상된다.

비트컴퓨터의 의료정보시스템 매출액 추이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클라우드 패키지형 매출 증가로

- 1) 시장점유율 확대,**
- 2) 안정적 매출 수익 창출과**
- 3) 수익성 개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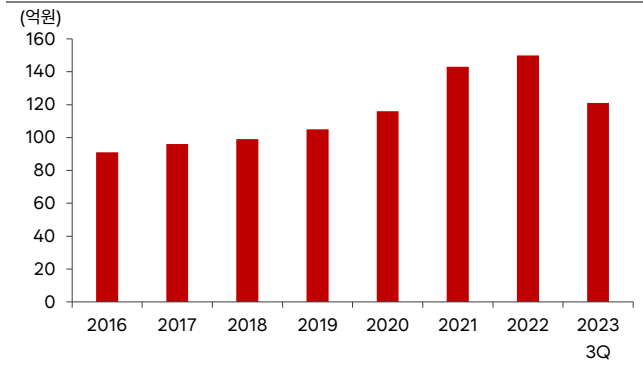
비트컴퓨터는 EMR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1) 적극적인 M&A 전략과 2)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변화는 클라우드 패키지형 매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SI(구축형)은 매출 확대를 위해 개발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는 반면, 클라우드 패키지형은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컴퓨터는 EMR 매출액 내에 클라우드 패키지형 매출 비중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매출 수익 창출과 수익성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SI(구축형) 매출의 경우, 병원마다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해서 비트컴퓨터는 수익을 일시에 인식하게 된다. 반면, 동사는 클라우드 패키지형 판매 시 월사용료를 받아 매출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출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컴퓨터의 클라우드 패키지형 EMR 매출액은 2016년 91억원에서 2022년 150억원으로 연평균 8.7% 성장했다. 이에 전체 EMR 매출액 내 비중도 2016년 39.1%에서 2022년 57.9%까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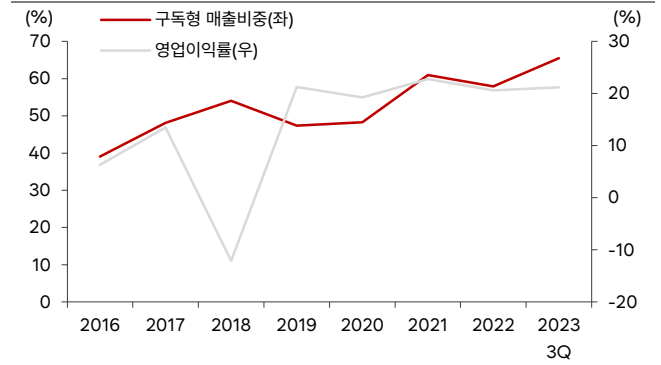
클라우드 패키지형 매출 증가는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SI(구축형) EMR의 매출총이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클라우드형은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BEP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다. 현재 동사의 클라우드형 EMR 매출 총이익률은 30~40% 정도 수준이다. 클라우드 패키지형을 판매하기 전인 2016년 동사의 의료정보사업 영업이익률은 6.3%에 불과했으나, 2021년부터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비트컴퓨터의 클라우드 패키지형(구독형) EMR 매출액 추이



주: 2023년은 3분기까지 누적 금액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트컴퓨터 구독형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률 추이



주: 2018년에 발생한 매출액이 2019년으로 이연 인식되며 2018년 영업이익률 급락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EMR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전망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EMR은 의료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에 데이터 확보 점점 확보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의 토대 마련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EMR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핵심적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MR은 의사 진료의 패턴과 원내 프로세스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차적인 의료데이터가 생성, 저장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의료 접점의 시작이 EMR에서 출발한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보건의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주목해야 한다.

2022년 6월 처음 개최된 제 1기(’22.6~’24.6) 보건의로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 의료마이데이터, 2) 디지털 헬스케어와 3) 빅데이터 개방 등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운 데 따른 조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을 제시하며, 세부 항목으로 1)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 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과 2) 보건의로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 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시범 개통에 들어갔다. 2021년 2월부터 약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제 1기, 2021.2~2022.8월)으로 구축에 착수, 완료하고 시범 개통에 들어간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로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 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 중계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의료정보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보도했다. 시범 개통 시보다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이 860개소(상급종합 병원 9개소, 종합병원 13개소, 병의원급 838개소)로 늘어났으며, 의료데이터 제공 범위도 공공기관 의료정보에 의료 기관 의료정보가 추가되었다. 참고로,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과 관련해 EMR이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의료기기에서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진료 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 중에서 의료기관 데이터가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기관과 연동된 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의료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필수 요인이다.

점진적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투자포인트2.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

비트컴퓨터의 두번째 투자포인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기대되는 수혜이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에 널리 사용되면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단어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쟁은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이뤄졌지만, Covid-19를 계기로 인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면서 이용자가 느낀 편리함과 2) 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한 흐름이 국내 비대면 진료 도입에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반의 건강,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했다. 의료취약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진료는 질병위험이 하락하며 2023년 5월 종료되었다. 계도 기간을 걸쳐 9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9월에 발표된 시범사업 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의원급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은 초진을 허용하고, 회귀질환, 수술치료 후 환자는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플랫폼 업체가 원하는 약배송은 포함되지 않았고,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했다. 작년 12월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1) 재진 기준이 완화되고, 2)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의 경우 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하게 되었다.

비대면진료의 주요 주체인 의사와 약사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허용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방향은 완화 추세이다. 비트컴퓨터는 몽골, 캄보디아, 브라질과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수출하고 국내병원과 해외병원간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며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또한 향후 비대면진료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바로닥터' 플랫폼도 만들었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시장 확대는 동시에 긍정적일 전망이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 Review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235억원(-7.3%YoY),
영업이익 45억원(+4.2%YoY)
기록

비트컴퓨터의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의료정보사업부와 교육사업부의 매출액은 각각 4.4%, 30.5% 감소한 반면, 임대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도 13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임대사업 매출액은 1) 교육 센터 내 강의장 신규 임대 매출 발생과 2) 코로나 종료에 따른 종속회사 비타임의 임대매출 증가에 기인한다. 의료정보사업부 내에서 의료정보시스템 사업부의 매출액은 1.2% 증가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종료되며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액이 71.1% 감소했다.

동사의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9.1%로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 대비 2.1%p 상승했다. 매출원가율은 60.3%로 전년동기 대비 4.7%p 개선된 반면, 판관비율은 20.6%로 2.6%p 상승했다. 영업이익률 개선의 주요인은 1) EMR 매출액 내 클라우드 패키지 매출액 비중 증가와 2) 임대사업 이익 증가에 기인한다.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의료정보사업부문과 임대 사업부문의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각각 21.2%와 23.7%로 전년동기 대비 1.3%p, 6.2%p 개선되었다. 반면 교육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년동기 대비 0.1%p 하락했다.

동사의 지배주주기준 당기순이익은 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 실적 전망

2023년 매출액
327억원(-7.0%YoY),
영업이익 62억원(+1.0%YoY)
예상

당사는 비트컴퓨터의 2023년 매출액을 327억원(-7.0%YoY), 영업이익을 62억원(+1.0%YoY), 영업이익률을 19.0%(+1.5%pYoY)로 추정한다.

동사의 의료정보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교육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5%, 3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보사업 부문 내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 사업부문 매출액이 1.5% 증가하는 반면, 원격진료와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75.8% 급감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이유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매출액
345억원(+5.5%YoY),
영업이익 68억원(+9.4%YoY)
예상

비트컴퓨터의 2024년 매출액을 345억원(+5.5%YoY), 영업이익을 68억원(+9.4%YoY), 영업이익률을 19.7%(+0.7%pYoY)로 예상한다.

동사의 핵심사업부인 의료정보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6.9% 성장하며 감소세에서 전환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EMR교체 수요에 클라우드 패키지 EMR 수요로 의료정보시스템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5.4% 증가할 전망이다. 또

한, 최근 비대면 진료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5억원에 불과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문 매출액이 1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영업이익률은 1) EMR 매출액 내 클라우드 패키지 매출액 비중 증가와 2)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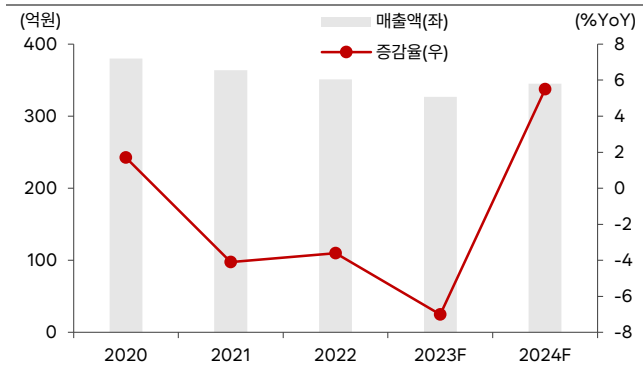
실적전망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380	364	351	327	345
의료정보사업	267	269	281	268	287
의료정보시스템	240	235	259	263	277
디지털헬스케어	27	35	22	5	10
교육사업	90	79	52	36	37
임대사업 등	16	16	19	23	21
영업이익	56	64	61	62	68
당기순이익	65	48	49	53	58
%YoY					
매출액	1.7	-4.1	-3.6	-7	5.5
영업이익	-7.1	13.6	-4.1	1	9.4
당기순이익	-7.6	-26.2	2.1	8.2	9.4
영업이익률	14.8	17.6	17.5	19.0	19.7
당기순이익률	17.2	13.4	14	16.3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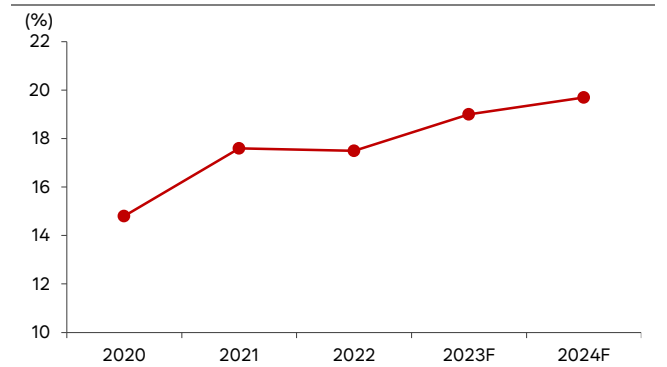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트컴퓨터의 매출액과 증감율 추이 및 전망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트컴퓨터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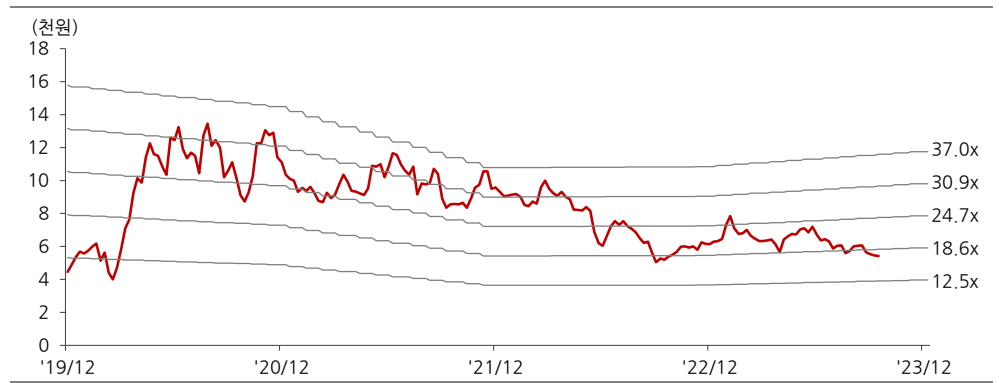
Valuation

**동사의 2024년
예상 PER은 17.1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Re-rating 가능할 전망**

현재 동사는 2024년 예상 PER 기준으로 17.1배에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동사의 평균 PER은 25.5배이다. 현재 동사의 PER은 지난 4년간 평균 PER 대비 낮은 수준에 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서 주가 모멘텀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진행 중이며, 1) 정부 스탠스와 2) 4차 산업혁명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허용 범위 확대에 향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동사 주가는 Re-rating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비트컴퓨터의 PER Band



자료: 비트컴퓨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ROE와 PBR 비교 시,
비트컴퓨터의 밸류에이션은
경쟁사 대비 저평가 국면**

비트컴퓨터의 상장 경쟁사로는 유비케어, 이지케어텍, 케어랩스 등이 있다. 유비케어, 이지케어텍과는 EMR 시장에 참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비대면진료를 주축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유비케어, 케어랩스 등과 경쟁하고 있다.

유비케어는 의원급 EMR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동사의 EMR 솔루션 주요 제품으로는 '의사랑', '유팜'과 '닥터스'가 있다. 동사는 종속회사와 관계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는 '똑닥'이 있다.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1) EMR 솔루션, 2) 제약 데이터 솔루션, 3) 유통 솔루션, 4) 약품 자동화 조제기와 약 조제 포장필름 제조솔루션 비중이 각각 44.7%, 6.3%, 25.1%, 22.8%를 차지하고 있다. 5)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관계기업인 (주)비브로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비케어에는 지분법으로 반영되고 있다. 올해 동사의 순이익이 적자인 주요인은 작년에 인수한 (주)크레템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주)크레템은 약품 자동분류포장시스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지케어텍은 종합병원급 EMR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동사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을 납부 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형병원 및 의원급에는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지분율 35.9%를 보유 중이며,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 2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3월말 결산 법인)으로 1) 의료정보시스

템 개발 및 판매, 2)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3)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 비중은 각각 40.1%, 51.5%와 8.4%이다. 2023년 상반기(2023년 4월~9월) 동사는 1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주요인은 일본 SMHU 프로젝트에서 환율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케어랩스의 주요 사업부문은 1)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헬스케어 모바일플랫폼과 2) 디지털 마케팅, 3) 솔루션(CRM소프트웨어, 처방전보안시스템, EMR솔루션 등)으로 나뉘어지며 2023년 9월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39.6%, 38.2%, 2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는 1)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닥'과 2) 뷰티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비톡'이 있다. 동사는 2023년 1월 원익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

비트컴퓨터의 경쟁사들의 2023년, 2024년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아, 2023년 9월말 기준 12M Trailing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ROE와 PBR을 비교 시, 비트컴퓨터는 경쟁사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 즉, 당사가 추정하는 비트컴퓨터의 2023년 ROE는 8.1%인 반면, 비트컴퓨터의 경쟁사들인 유비케어, 이지케어텍과 케어랩스의 12M Trailing기준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ROE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컴퓨터의 PBR은 1.5배로 경쟁사들(유비케어 2.2배, 이지케어텍 3.9배 등) 대비 낮다.

비트컴퓨터와 경쟁사들의 주요 재무지표 및 밸류에이션 지표

(단위: 억원, %, 배)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지케어텍	케어랩스
주가(원)		5,960	4,760	19,190	4,425
시가총액(억원)		991	2,485	1,312	859
자산총계 (억원)	2020	709	1,542	529	1,319
	2021	717	1,493	554	1,986
	2022	743	1,619	593	1,807
	2023E	774	1,535	509	1,750
자본총계 (억원)	2020	549	1,095	339	1,032
	2021	590	1,210	316	1,080
	2022	631	1,235	342	916
	2023E	675	1,191	339	879
매출액 (억원)	2020	380	1,048	769	767
	2021	364	1,118	921	939
	2022	351	1,333	732	876
	2023E	327	1,499	723	825
영업이익(억원)	2020	56	128	-40	60
	2021	64	100	6	33
	2022	61	67	-41	-64
	2023E	62	26	-46	-112
영업이익률(%)	2020	14.8	12.2	-5.2	7.8
	2021	17.6	8.9	0.6	3.5
	2022	17.5	5.1	-5.6	-7.3
	2023E	19.0	1.7	-6.4	-13.5
지배당기순이익(억원)	2020	65	62	-79	43
	2021	48	133	-32	13
	2022	49	36	-96	-261
	2023E	53	-35	-98	-262
ROE(%)	2020	12.6	6.0	-21.0	5.4
	2021	8.5	11.9	-9.7	1.3
	2022	8.0	3.1	-29.1	-28.0
	2023E	8.1	-3.2	-29.0	-32.6
PER(배)	2020	28.3	80.4	N/A	29.5
	2021	32.9	29.6	N/A	137.6
	2022	21.0	73.4	N/A	N/A
	2023E	18.5	N/A	N/A	N/A
PBR(배)	2020	3.4	4.7	3.4	1.5
	2021	2.7	3.3	8.1	1.7
	2022	1.6	2.3	5.5	1.4
	2023E	1.5	2.2	3.9	1.1
PSR(배)	2020	4.9	4.8	1.5	1.7
	2021	4.4	3.5	2.8	1.8
	2022	2.9	2.0	2.4	1.4
	2023E	3.0	1.7	1.8	1.0
배당수익률(%)	2020	0.6	0.5	0.5	-
	2021	0.6	0.5	-	-
	2022	1.0	1.2	-	-

주: 주가, 시가총액은 2024년 1월 2일 기준, 비트컴퓨터의 2023년 실적은 당사 추정치 기준, PEER 기업들의 2023년 예상 실적은 12개월 trailing 값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은**매출 성장 둔화 및 감소 우려**

비트컴퓨터의 리스크 요인은 매출 성장 둔화 및 감소 우려이다.

동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EMR시장은 현재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다. 또한 향후 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이 독과점화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트컴퓨터는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시기가 지연 시 단기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매출 성장도 제한될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비트컴퓨터는 단기적으로는 클라우드 패키지 EMR 확대와 M&A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진다면 EMR 비즈니스를 의료 데이터 사업과 연관해서 활용할 수 있고, '예방적인 정밀 의료'의 중요성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비트컴퓨터를 이를 위해 내실을 다지며 준비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380	364	351	327	345
증가율(%)	1.7	-4.1	-3.6	-7.0	5.5
매출원가	265	240	231	200	210
매출원가율(%)	69.7	65.9	65.8	61.2	60.9
매출총이익	115	124	120	126	135
매출이익률(%)	30.2	34.0	34.2	38.7	39.2
판매관리비	58	60	59	64	67
판매비율(%)	15.3	16.5	16.8	19.6	19.4
EBITDA	73	85	84	80	84
EBITDA 이익률(%)	19.2	23.5	23.8	24.4	24.3
증가율(%)	-4.8	17.0	-2.2	-4.4	4.7
영업이익	56	64	61	62	68
영업이익률(%)	14.8	17.6	17.5	19.0	19.7
증가율(%)	-7.1	13.6	-4.1	1.0	9.4
영업외손익	21	-6	-4	0	1
금융수익	7	2	3	6	7
금융비용	2	2	1	1	1
기타영업외손익	15	-6	-6	-6	-6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4	4	6	7	7
세전계속사업이익	81	62	64	69	76
증가율(%)	-5.8	-22.7	2.1	8.5	9.8
법인세비용	15	13	14	16	17
계속사업이익	66	49	49	53	5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6	49	49	53	59
당기순이익률(%)	17.2	13.4	14.0	16.3	17.0
증가율(%)	-7.6	-25.4	0.7	8.4	9.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5	48	49	53	58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4	64	62	72	66
당기순이익	66	49	49	53	59
유형자산 상각비	14	16	17	13	11
무형자산 상각비	3	5	5	5	5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8	-16	-6	9	0
기타	-17	10	-3	-8	-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6	-40	-36	10	-1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71	-1	-2	3	1
유형자산의 감소	1	0	1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1	-21	-6	-2	-4
기타	-97	-18	-29	9	-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	-35	-32	-24	-10
차입금의 증가(감소)	17	-20	-15	-14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0	-10	-10	-10	-10
기타	-10	-5	-7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13	2
현금의증가(감소)	65	-10	-6	45	48
기초현금	24	89	78	72	118
기말현금	89	78	72	118	166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유동자산	212	260	282	327	384
현금성자산	89	78	72	118	166
단기투자자산	67	119	132	139	145
매출채권	34	28	39	33	35
재고자산	4	1	2	3	3
기타유동자산	18	34	37	34	36
비유동자산	497	457	460	447	443
유형자산	175	209	218	207	200
무형자산	78	66	57	55	55
투자자산	106	70	92	96	102
기타비유동자산	138	112	93	89	86
자산총계	709	717	743	774	827
유동부채	102	82	70	73	76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18	9	10	11	11
기타유동부채	84	73	60	62	65
비유동부채	57	46	41	27	2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33	18	8	-1	-1
기타비유동부채	24	28	33	28	29
부채총계	160	128	112	99	104
지배주주지분	548	587	628	671	719
자본금	83	83	83	83	83
자본잉여금	129	129	129	129	129
자본조정 등	-13	-12	-12	-12	-1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348	386	427	470	518
자본총계	549	590	631	675	723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F	2024F
P/E(배)	28.3	32.9	21.0	18.5	17.1
P/B(배)	3.4	2.7	1.6	1.5	1.4
P/S(배)	4.9	4.4	2.9	3.0	2.9
EV/EBITDA(배)	24.0	17.1	10.3	9.4	8.5
배당수익률(%)	0.5	0.6	1.0	1.0	1.0
EPS(원)	392	291	293	318	349
BPS(원)	3,294	3,531	3,777	4,035	4,324
SPS(원)	2,287	2,192	2,114	1,966	2,074
DPS(원)	61	61	61	61	61
수익성(%)					
ROE	12.5	8.5	8.0	8.1	8.3
ROA	9.8	6.9	6.7	7.0	7.3
ROIC	23.7	20.1	16.7	16.7	19.3
안정성(%)					
유동비율	207.1	317.6	402.2	449.4	504.9
부채비율	29.1	21.6	17.7	14.7	14.3
순차입금비율	-17.7	-23.2	-26.1	-34.2	-39.3
이자보상배율	29.0	42.4	55.0	84.6	116.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5	0.5	0.4	0.4
매출채권회전율	9.4	11.7	10.5	9.1	10.2
재고자산회전율	83.9	174.8	274.8	130.1	112.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비트컴퓨터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